



기획시리즈



임경빈
전 서울대 교수

조경수목산책 (XIV)

— 삼 나무 —



▲삼나무 천연림. 아끼다깡 1981. 9.

1. 삼나무의 생물학

삼나무는 중국에도 있다하나 어디까지나 일본의 나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남쪽 특히 호남지방의 해안가 낮은 곳에 많이 심어져 있고 자람도 그만하면 될 정도이고 정부에서도 이용가치가 비교적 높은 나무로 해서 식재를 권장하고 있다.

삼나무 가지는 떨어지는 일이 있지만 잎은 떨어지는 일이 없다 하면서 우리는 삼나무의 살아가는 모습을 흥미있게 풀어해 보기도 했다. 그것은 삼나무의 잎은 곧 가지의 일부분으로 보이고 가지와 잎 사이에 어떤 조직상의 경계가 보이지 않는다. 대개 나무의 잎은 가지와 잎이 붙어 있는 부분이 잘 구별이 된다. 솔잎만 하더라도 그러하다. 어떤 사람은 삼나무 잎의 아랫부분이 붙어 있는 가

지 안에 숨어있다는 표현을 한다.

삼나무의 학술상의 이름은 크립토펠리아 야포니카(*Cryptomeria japonica*)인데 크립토는 숨어 있다는 뜻이고, 메리아는 잎의 관절부분을 뜻한다. 말하자면 관절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다. 잎의 형태를 잘 파악한 학술상의 명칭이다. 야포니카(또는 자포니카)는 이 나무가 일본에서 나고 또 일본을 상징하는 나무라는 뜻이다. 이 나무는 일본에 있어서는 경제적으로 가장 뛰어난 말하자면 첫번째 자리를 차지하는 수종이다. 그 다음이 편백인데 그들은 히노끼라고 부른다. 삼나무의 일본말 명칭은 스키인데 스키의 뜻은 줄기가 곧게 자라는 나무를 말한다. 直木으로 쓰고 이것을 스키로 읽는데 줄기가 곧다는 뜻이다.

스키 즉 삼나무는 상록성이고 키가 40m까지 자라고 큰 나무는 줄기직경이 2-4m에 이른다. 수피는 적갈색 또는 회갈색이고 겹질이 섬유상으로 벗겨져서 떨어진다. 잎은 끝이 뾰족하고 침같이 생겼다. 가을, 겨울이 되면 삼나무의 잎색이 적갈색으로 변하는데 그것은 그때가서 잎 속의 엽록소의 양이 줄어들고 붉은 색소가 생겨나기 때문이다.

삼나무는 1종 1속(屬)으로 단순한 가계의 집안으로 조금은 외롭다. 소나무류, 전나무류, 가문비나무류, 솔송나무류, 측백나무 등과 함께 구과류(球果類)로 뭉쳐지

는데 이러한 구과를 만드는 식물은 끝이 뾰족하고 날카로운 가는 잎을 가지는 잎이 흔해서 침엽수류라고 말한다. 침엽수류는 나자식물인데 그 중에서도 은행나무나 소철 등에 비하면 스스로 운동력을 가져서 이동할 기능을 가진 정자를 만들지 못하고 정자세

포는 화분관에 의해서 난자세포까지 운송된다. 이러한 특성은 소나무나 삼나무가 은행나무보다 진화상 더 앞서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구과를 영어로는 콘(cone)으로 말하는데 구과관 윗면에 배주를 붙이고 있는 단단한 인편(鱗片, 비늘조각에 닮은 것)이 축(軸)에 따라 가득 붙어있는 것을 말한다. 어릴 때에는 인편은 서로 밀착해서 배주를 보호하고 있다. 즉 곤충같은 것이 인편 사이의 공간으로 들어가서 배주를 침범할 수 없게끔하고 있다. 그러나 성숙이 계속 되면 목질화가 진행되고 인편 사이에는 간극이 생기고 성숙한 종자가 흘러나와서 흩어지게 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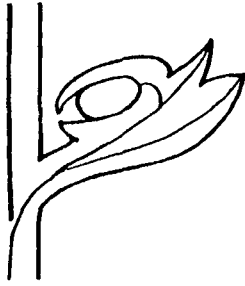


▲ 가장 오래된 삼나무. 남부산림관리청. 무주관리소. 1994. 4. 26.

다.

소나무류의 구과의 인편은 그림에서 보이듯이 두겹 구조로 되어 있으나 삼나무류의 구과인편은 끝이 갈라져 있기는 하나 한겹 구조로 되어 있어서 서로 구별이 된다. 침엽수류의 구과의 모습은 다양하고 이것이 구과류 식물의 분류에 한 거점을 주고 있다.

구과류에는 약 60속(屬) 600종의 식물이 있으나 그 중 1속 1종의 것이 약 20정도 있다. 삼나무과에는 9개의 속이 있는데 거의 대개가 1속 1종으로서 옛날에 분화(分化)해서 변형을 누렸고 지금은 쇠퇴해가고 있는 무리들이라고 짐작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화석 연구에서도 밝혀지고 있다.



삼나무과의 형



소나무과의 형

그림. 구과의 인편

삼나무과는 이러하지만 소나무과에는 이홉 개의 속이 있고 종의 수만도 200개를 넘고 북반구의 아한대 등에는 대규모의 숲을 만들고 지구 식생의 중요한 부분을 만들고 있다.

2 일본개국과 삼나무

일본의 개국의 역사는 일본서기(日本書記)에 나타나고 있는데 그곳에 삼나무의 창조가 있다. 일본의 개국의 신으로 천조대신(天照大神)이 있고 이는 여신이다. 그 아우에 스사노오노미꼬도(素戔嗚尊, 소전명존)라는 난폭한 신이 있었다. 그들의 기록에 의하면 스사노오노미꼬도가 우리나라 신라에 와서 배를 만들 수 있는 나무를 가져다 그곳에 심었다고 한다. 초기 일본임업은 우리나라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된다.

이 신이 말하기를 나라를 다스리는 데에는 배가 있어야 한다면 서 그의 수염을 뽑아 흩어지게 하니 곧 삼나무로 되었고, 가슴의

털을 뽑아 흩어지게 하니 이는 편백(히노끼, 檜)으로 되었다. 궁둥이의 털은 마끼(磨紀, 楸)라는 수목으로 되고 눈썹의 털은 예장(豫樟, 녹나무)으로 되었다. 여기에 피(楸)자는 사전에 보면 삼나무 피 또는 비자나무 피로 되어 있다. 마끼라는 난대성 수목이 있다. 이때 피(楸)가 어떤 나무를 뜻하는 지는 더 알아보아야겠다.

그리고 그는 각각 나무의 용도를 정하였다. 삼나무와 녹나무는 조선재로 이용할 것과 편백은 궁

궤를 건조하는데, 또 피(비자나무?)나무는 백성이 장사지낼 때 쓰는 관재(棺材)로 하라고 했다. 이 신의 아들들은 나무씨를 뿌려 숲을 만드는데 힘썼다고 한다. 몸에만 털로서 삼나무와 편백이 만들어졌다면 나무는 신이란 인간의 분체(分體)이고 사람과 나무의 일체성같은 것을 일본의 개국사에서 엿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개국의 이야기는 곰과 호랑이 등 좀 엄숙하고 신비에 싸여 있는데 일본의 개국역사는 무척 인간적인, 조금은 노골적으로 인간적인 면에 있어서 우리의 것과 대조가 된다. 즉 하늘의 신이 두 신을 일본국토로 보내어 다스리라하고 창을 내려 주었다. 두 신은 그곳으로 가서 하늘 기둥을 세웠다. 양(남성)의 신이 음(여성)의 신에게 묻기를 『당신의 몸은 어떻게 생겼습니까』했더니 여신이 대답하기를 『저의 몸은 다 되고 음의 본처라는 곳이 있습니

▼삼나무의 잎과 수꽃.





◀ 삼나무 숲.
진해군향림.
1994. 7. 20

다」라고 대답하였다. 이때 양의 신도 대답하기를 『나의 몸도 다되고 양의 근원이란 곳이 하나 있습니다. 나의 양을 그대의 음의 곳에 합하여 보려 합니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 방법을 몰라서 당황하고 있을 때 할미새가 와서 교합하는 방법을 알려주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일본의 개국사에는 적나라한 인간다운 면이 있다.

3. 삼나무의 쓰임새 그리고 술

삼나무는 쓰임새가 다양하다. 건축재, 가구재, 조각재, 생활용기 등을 들 수 있다. 술통을 만드는 데에는 목재의 색깔이 담홍색 또는 적갈색을 띠는 것이 사용되고 목재의 성분이 스며들어 술 맛

에 향기를 더해 준다. 잎은 향료로 되고 목재는 악기재, 조선재, 신발(개다)재, 상자재 등으로도 쓰이고 수피는 지붕을 덮는 좋은 재료가 되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삼나무는 일본산의 숲과 인연이 있어서 술집에 술이 있을 때에는 처마에 삼나무 가지를 달아서 술이 있다는 표징으로 했다한다. 나는 유럽 오지리 비엔나 시에서 이러한 것을 목격한 일이 있다. 즉 술집 출입문 바깥쪽 처마에 술가지를 달아서 술이 있다는 걸 나타내는 습속을 본 적이 있다. 어쩌면 나라가 달라도 착상에 이처럼 큰 유사점이 있을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중국에 있어서도 술집에는 주기(酒旗, 술이 있음을 알리는 깃대)를 달아 공고하는 습속이 있었다.

두목(杜牧, 803-852)의 『강남의 봄』이란 시에 다음이 있다.

天里鶯啼綠映紅
천리앵제녹영홍
水村山郭酒旗風
수촌산곽주기풍
南朝四百八十寺
남조사백팔십사
多少樓臺烟雨中
다소누대연우중

『천리 먼 길 찌꼬리 울어 풀의 푸름이 꽃의 붉음에 어울리고 물가의 마을, 산기슭의 마을, 모두 주기가 바람에 날린다. 남조이래 사백팔십사의 탑들이 봄 비 안에 젖어 있다.』이 얼마나 황홀한 풍경이냐. 술은 인생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인가. 온 마을에 주기가 나무꾼다니 그렇게도 생각된다.

일본에서는 새 술이 나왔을 때에는 삼나무의 잎가지를 등글게 만들어 처마 끝에 달았다고 한다.

4. 부산 수원림과 삼나무

청일전쟁, 일로전쟁이 끝나자 부산에 와서 사는 일본인의 수가 급증해서 그들은 식수를 얻기 위해서 저수담을 만들고 그 주변에 소위 부산부(釜山府) 상수도 수원림을 만들었다. 기록을 보면 부산 주변에 고원전(高遠見) 저수지 또 성지곡(聖知谷) 저수지를 만들고 각각 그 면적이 약 260ha 및 310ha

에 이르는 수원림을 조성했다. 그때 식재된 수종은 해송을 주로 하고 상수리나무, 편백, 삼나무 등이었다.

다음과 같은 기록을 읽을 수 있다.

식재한 뒤 나무의 자람은 일반적으로 양호하였으나 삼나무와 편백은 예상 밖으로 성과가 좋았다. 종래 삼나무와 편백의 시험적 식재는 조선 각지에 있어서 실시되었지만 모조리 실패로 끝나고 이 수종은 거의 절망적인 것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위의 성적을 감안해서 1914년에 이르러서는 삼나무 1만 1천 그루, 편백 약 10만 그루를 혼식해서 이미 성립이 되어 있는 상목(上木)의 보호를 받도록 했다. 말하자면 수하식재(樹下植栽)에 해당한다. 이때 조림성과가 좋아서 1921년 이후 삼나무 약 2만 7천 그루, 편백 약 3만 그루를 추가식재했는데 이것도 성과가 좋았다고 한다. 이것은 조선에 있어서 유일한 삼나무 및 편백림으로서 조선 임업계의 하나의 이채(異彩)라고 표현하고 있다. 당시 근처에 묘포를 설치해서 이들 수종의 양묘가 실시된 모양이다.

이상은 고원견 사업구에 대한 내용이다. 성지곡 수원림 사업구에 있어서는 1920년부터 1927년까지 삼나무 약 12만 그루, 편백 약 6만 그루를 심었는데 그 성격이 양호하여 역시 삼나무와 편백조림에 이채를 띤 것으로 표현되고 있다.



▲경영되고 있는 삼나무 숲 큐슈 히타지방 1972. 10

▼잘 무육된 삼나무 숲. 기따야마. 교오도. 1972. 10



이처럼 우리나라의 삼나무 식재의 역사는 일정 때 부산시 상수도 수원림의 조성과 더불어 시작된 것으로 믿어진다. 거제도에도 삼나무가 심어진 바 있다.

5. 옛 책의 삼나무

삼재도회(三才圖會)란 책은 명

(明)나라의 왕기(王圻)의 저서인데 607년경 만들어졌고 그 뒤 그의 아들 사의(思義)가 속집을 편찬했다. 천(天), 지(地), 인(人)의 삼재(三才)에 걸친 내용을 천문, 지리, 조수, 초목 등 14개의 문(門)으로 나누어 그림과 함께 설명한 것이다. 일종의 백과사전이다. 그 중에는 황당무계한 것도

있으나 명나라 시대의 역사를 공부하는 데에는 도움이 된다. 이 책에 일본의 실정을 보충한 일본판의 것을 화한삼재도회(和漢三才圖會)라 한다.

삼재도회에 삼나무(杉木)의 설명이 나온다. 삼나무는 남쪽지방 깊은 산 중에 나고 줄기가 단단하고 곧고 잎은 가지에 붙어 가시바늘(刺針)과 같다고 해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삼나무를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화한삼재도회에는 삼나무를 길게 소개하고 있다. 삼나무는 한자로 사목(沙木), 삼(黏), 또 일본 한자로는 스기(須木)로 쓰는데 이것은 스구(經直)의 나무를 뜻한다고 했다. 그러나 중국에서 삼목(杉木), 사목(沙木)으로 말하는 것은 광엽삼(廣葉杉)을 말하는 것으로 중국 남부 및 서부에 난다고 했다. 일본의 삼나무는 중국에서는 왜목(倭木)으로 말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아(爾雅)에는 『삼(黏)은 소나무(松)에 닮아 있고 강남(양자강 이남)에 나며 조선재 및 관(棺)재로 쓰인다. 기둥을 만들어 땅 속에 묻어도 썩지 않는다.』라고 있다. 또 사람들은 이 나무로 물통을 만들어 쓰는데 물에 견디는 힘이 강하다고 했다. 본초강목에 나오는 삼(杉)나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본의 고유종 그것과는 다른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정다산도 아연각비에 삼(杉)을 취급하고 있는데 각종 문헌의 내

용을 소개하고 스스로도 어떤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그러나 정다산의 이해도 정곡을 찌른 듯이는 생각되지 않는다. 그 분의 개인적 견해부분을 보면 다음과 같은 부분이 있다. 『삼(杉)나무는 수관이 층상(層狀)을 이루고 줄기가 곧다. 조선사람들은 이것을 잘못 알고 익가(弋價, 弋는 주살 익 또는 말뚝 익, 말뚝은 곧다. 價는 가래 나무 또는 개오동나무를 뜻하고 관재로 이용된다.)로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줄기 곧은 삼나무를 보면 회(檜)라 한다. 이것은 큰 잘못이고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러한 서술 중에서 익가의 뜻

은 우리나라 재래종의 낙엽송, 즉 이깔나무를 뜻하는 것이다. 줄기 곧은 삼나무를 보고 회나무(檜, 향나무 또는 편백), 즉 노송나무로 말한다 했으나 정다산 선생 시대에는 우리나라에 삼나무가 아직 들어오지 않았을 것을 생각하면 이 대목은 이상하게 된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당시 흔하게 삼나무를 볼 수 없었을 것이다. 또 회는 노송나무 회로 읽고 뜻은 편백나무인 것을 노송나무로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러나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은 삼나무도 또 노송나무인 편백도 볼 수 없었을 것이다. 17세기에 우리나라 정부에서 편찬한 책에 왜어유해(倭



▶ 거대한 삼나무.
아끼따지방.
1981. 9

語類解)가 있는데 그 책에도 杉은 스기(일본말) 삼으로 옹게 기록하고 있으며 檜는 전나무 회로 읽고 뜻은 히노기로서 일본의 편백을 말한다고 했다. 또 杉을 익개삼으로 읽는다 했는데 익개삼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 또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알기 어려우나 익가에서 온 것은 아닐까. 즉 『이갈나무에 닮은 나무 삼』으로 된단 말인가.

물론 왜어유해의 내용이 당시 국민 각 층에 알려지지는 못하였을 것이나 『삼(杉)을 보고 회(檜)라 한다.』는 정다산 선생의 서술은 해설하기가 어렵다.

또 다음과 같은 설명이 있다.

『이러한 문헌의 내용을 고찰해 볼 때 杉은 속되게 흔히 말하는 檜를 지칭하는 것이다. 삼나무 관재로서는 더할 나위없이 좋은 나무인데 실물과 이름을 잘못 알고, 다만 그 용도가 조선재라고만 알고 있다면 잘못이다. 비자나무(樺)와 삼나무는 서로 많이 닮아 있다.』

여기서도 杉과 檜의 구별이 뚜렷하지 못하다. 檜를 과거 우리는 전나무를 뜻하는 것으로 썼다. 그러하다면 檜는 편백이 아니다. 1803년경 나온 물명고(物名考)에 보면 『杉은 黏으로도 쓰고 잎은 단단하고 가지처럼 생겨 가지에 붙어 있고 열매는 풍실(楓實, 풍나무의 열매, sweetgum으로 말하는 외국 수종)에 닮고 목재는 썩지 않는다. 익가나무이다.』

이처럼 옛 책에 나오는 한자의

수목명은 그 진품의 파악이 무척 어려운 것들이 많다. 아리송하고 핵심의 파악이 어렵고 무엇이 무엇인지 복잡하다.

6. 삼나무의 시

삼나무가 등장하는 한시로는 가도(賈島, 779-843)의 것이 당

고 생각에 잠겨 있었는데 우연히 지나가던 한퇴지 등의 행차에 부딪혀 고(敲)자로 하라는 지도를 받았다고 고사가 있다. 그래서 문장을 세련되게 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을 퇴고라 한다.

그의 완월(翫月, 달을 즐기다) 시에 다음이 있다.



▲다이스기(台杉). 교오도, 기따야마. 1972. 10

시집에 나오고 있다. 가도는 시를 만들 때 그 표현을 잘하고자 무척 고생하는 성격이 있었다. 그는 스스로 『이구삼년득(二句三年得), 일음쌍루유(一吟雙淚流)』 즉 시 두 구절을 얻는데 3년을 요했고 한번 읊는데 두 눈물이 흐른다는 등 고음(苦吟)한 사람이다. 퇴고(推敲)의 일화는 가도가 만들었다. 즉 그는 『승고월하문(僧敲月下門)』 승이 달밤에 문을 두드린다는 시를 쓸 때, 밀 퇴(推)로 할까 또는 두드릴 고(敲)로 할까하

한월과동북 寒月破東北
가생입서남 賈生立西南
서남입의하 西南立倚何
입의청청삼 立倚青青杉
근월유수성 近月有數星
성명미상암 星名未詳諳
단애삼의월 但愛杉倚月
아의삼위삼 我倚杉爲三
월내불상삼 月乃不上杉
상삼난상삼 上杉難相參

이 시는 더 계속된다. 위 몇 줄 안에 杉자는 다섯번, 月자와 倚자

는 네번이나 되풀이되고 있다.

뜻은 「찬 달이 동북 쪽에서 뛰어나오고 가쟁은 서남편에서 있다. 무엇에 기대어 서남쪽에 서 있는가. 푸르고 푸른 삼나무에 기대어 서 있노라. 달 가까이에 몇 개의 별이 있으나 그 이름은 기억하지 않고 있다. 좋은 것은 삼나무가 달에 기대어 있다는 것이고 내가 삼나무에 기대어 있으니 셋이 아닌가. 달아 삼나무 위로 올라 오지 말아라. 네가 위로 오르면 우리는 셋이 될 수 없다.」고 풀이된다. 무척 섬세한 광경의 묘사라 할 수 있다.

피일휴(皮日休, 833-883 ?)의 시에도 삼나무가 나타난다.

남산에서 다(茶)행사를 하는데
찾물 술이 바위 옆에 놓아지고
물을 끓이니 물이끼 냄새(水煮石髮氣)

불을 피우니 삼나무의 기름
향기(薪燃杉脂香)

하는 대목이 있다. 물이끼 냄새가 삼나무 향기나 이미 청아(清雅)한 다행사의 한 부분으로 접어들고 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다의 향기가 참여하게 되어 온통 향기의 세계로 뒤덮이게 될 것이다. 삼나무 잎은 향의 제조원료로 되는 만큼 그 향기를 시로 읊을만하다. 이때 杉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삼나무와 같은 것이면 좋겠다.

7. 삼나무, 축복받은 일본임업

일본은 임업적으로 하늘의 축복을 받은 나라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삼나무, 편백 그리고 나한백(羅漢柏)이란 세계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좋은 수종을 가지고 있다는 데 있다. 이 세 가지 수

어미나木の 유전적 형질이 그대로 내림되고 그러한 나무에서 양성된 묘목으로 숲을 만들면 모양이 비슷하고 통일된 규격의 상품적 목재가 생산될 수 있고 불량한 형질의 나무는 도태되어서 제거된다. 이러한 일을 거듭하므로 숲의 생산성, 경제성은 최고도로 올라가게 된다. 이처럼 삼목조림



▲삼나무 방풍림. 산굼부리. 제주도. 1990. 7. 25

종이 지니고 있는 장점으로선 줄기가 곧게 자라는 점, 재질이 좋아 각종의 용도가 있다는 점 그리고 꺾꽂이로 묘목이 잘 양성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들을 삼대조림 수종으로 말할 수 있다. 세계 각국의 숲 조성의 내력을 보면 대개 종자로 묘목을 양성해서 심어주므로서 이루어지는데 일본의 이들 수종은 무성번식묘로 숲 조성이 잘될 수 있다. 무성번식의 장점은 좋은 어미나木가 얻어졌을 때 그 가지로서 증식이 되므로서

국가는 거의 없고 나무의 개량이 일찍부터 가장 잘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가 일본이다.

여기에다가 일본은 기후가 온화하고 강우량이 많고 관계습도가 높은 해양성 기후를 가지고 있어서 이들 나무의 자람에 가장 알맞은 조건을 제공하고 있다.

종자로 번식되는 나무, 가령 소나무, 낙엽송, 잣나무, 물푸레나무 등은 종자묘, 즉 실생묘(實生苗)는 유전적 분화(分化)로서 모두 서로 다른 소질을 가지게 된

다. 지구상에 60억의 사람이 살고 있어도 서로 똑같은 사람은 찾을 수 없듯이 우리나라 소나무에 있어서도 유전형질이 서로 같은 나무란 없다. 그래서 실생묘로 숲을 만들 때에는 그곳에 심어진 나무들끼리 싸우게 된다. 즉 경쟁이 있게 되고 강한 것은 남고 약한 것은 도태된다.

삼나무의 삼목묘로 숲을 만들었을 때에도 큰 나무, 작은 나무의 차등이 생기는데 이것은 서로의 경쟁으로 초래된다는 것보다는 그 나무가 자리잡게 된 곳, 즉 땅의 좋고 나쁜 데에서 유기되는 현상으로 치부해야 한다.

우리는 벼농사나 다른 농작물을 재배할 때 그 품종이 유전적으로 한결같기에 생산성이 높아질 수 있다. 이처럼 삼나무, 편백, 나한백은 삼목묘로 일찍부터 조림이 되어 왔다. 그래서 오늘의 일본임업은 자랑거리로 되고 있다.

일본의 산지의 지세는 우리나라처럼 험준하나 그들은 예로부터 토양의 유실을 철저하게 방지하는 수단을 강구하면서 산과 숲을 다루어 왔기에 땅의 높은 생산력이 유지되었고 부식(腐植)의 함량도 높아 토양수분 저장에, 토양공기의 유통에도 또한 이로운 미생물의 생활에도 좋은 상태를 지속시킬 수 있었다. 우리나라보다 강한 태풍과 폭우가 더 자주 쏟아지지만 기술적인 숲 관리로 그것을 극복하고 있다.

삼목조림 국가인 일본, 세계에서 유례를 볼 수 없는 그러한 조건이 일본의 임업을 축복받게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더 쉽게, 값싸게 또 더 빠르게 나무의 개량이 진행될 수 있는 수종이 삼나무, 편백 등이다. 여기에 사진으로 꺾꽂이 할 가지의 채취(오른쪽), 이것을 정식 삼수로 마련하는 요령(중간) 그리고 그 삼수에서 뿌리가 난 상황(왼쪽) 등을 보인다.

이 사진은 삼나무 삼목요령의 표준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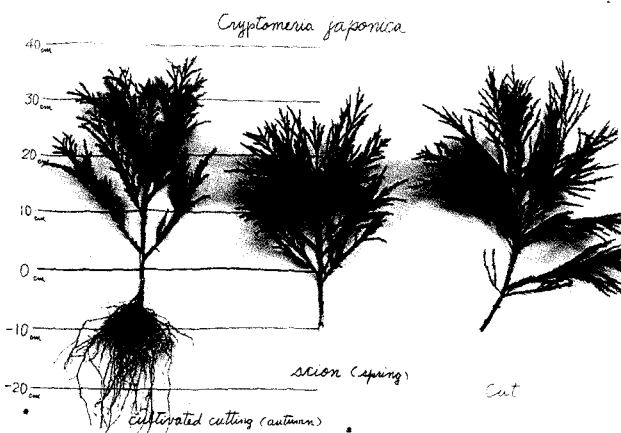
8. 그들의 유명임업

삼나무를 한문자로는 杉으로 쓴다. 필자는 삼나무가 개울가 같은 물기가 풍부한 곳에서 좋은 자람을 하기에 木과 川이 모여서 된 글자라고 짐작했었는데 그보다 杉의 「彡」은 날카롭고 가는 바늘 모양의 잎을 상징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래서 삼나무 삼(杉)자는 잎의 모양에 주목해서 만들어진 글자이다.

일본의 삼나무는 동해쪽의 뒷삼나무(裏杉)와 태평양 쪽을 향한 지역의 앞삼나무(表杉)로 크게 구별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눈, 기온 등 환경의 차이에서 온 것이다. 삼나무는 삼목조림이 잘되는 까닭에 여러 가지 품종이 알려지고 있다.

일본에는 소위 유명임업(有名林業)이란 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지역에 발달한 특성있는 조림 기술체계로서 몇 백년간 답습되고 있는 전통기술이다. 다시 말해서 삼나무, 편백을 중심으로 한 삼고 가꾸고 그 결과 얻어지는 목재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지역적인 유명임업을 발달시킨 역사적 유래와 내용을 현재 경제사회의 변천에도 불구하고 그 기술, 전통이 이어지고 있다는 데 묘미가 있다. 보기를



▲삼나무 꺾꽂이. 삼수마련과 뿌리난 묘목. 큐슈. 임목육종장. 1972.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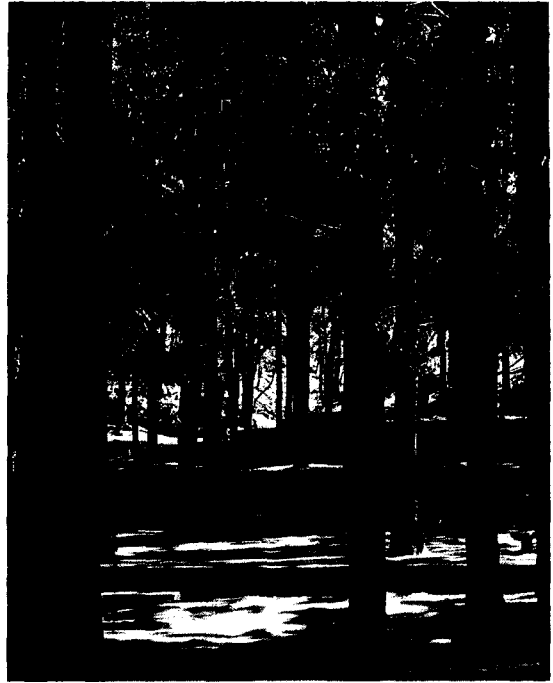
들면 내륙임업(內陸林業)인 요시노임업(吉野林業)이 있는데 이것은 약 450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별명으로 밀식조림(密植造林), 차지(借地)임업, 완만재(完滿材), 생산임업 등이 있다. 지난날 일본의 막부(幕府)시대에는 각 지방에 영주(領主)로서 번주(藩主)가 있었고 이 번주들을 통솔하는 것이 도오쿄(에도)에 있는 중앙 막부였다. 번주들의 반란을 막기 위해서 번주의 가족들은 막부에 인질로 잡혀 있었고 번주들은 일년에 한번씩 도오쿄로 문안을 드리기 위해서 상경했다. 매년 5만석 이상의 수입을 가진 번주를 다이묘(大名), 그 이하를 쇼오묘(小名)라 했는데 큐우슈(九州)의 몇 다이묘들은 각각 백명 이상의 부하를 거느리고 막부를 찾아야 했다.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막대하였다. 중간지점 오오사까 쪽에 이르면 노비가 바닥나서 그곳 거상(巨商)들에게 압력을 가해 돈을 장기로 꾸어 갔다. 거상들은 이러한 행패를 벗어나기 위해서 멀지 않은 요시노(吉野)지방에 가서 산을 빌려 조림을 하는데 돈을 투자하게 되었다.

이때 요시노 지방 사람들은 높은 값으로 땅을 빌려주고 실생 묘목을 양성해서 고가로 팔고 식재, 무육 등에 높은 임금을 받곤 했다. 작업량을 많게 하기 위해서 밀식조림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말하자면 요시노의 주민들은 황제를 할 수 있었던 것이다. 간벌(間伐)

을 할 때 간벌된 목재는 버리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지방민은 이것을 취득해서 이용하였다. 그들은 간벌재의 형질을 높이기 위해 용의주도한 가지치기 작업을 하게 되었고 작업임금은 수입으로 되었다.

가지치기를 그들은 「히모우찌」라 했는데 이것은 『끈치기』란 뜻으로 가지가 노끈만한 굵기가 되면 끊어준다는 것이었다. 간벌재에 사절(死節)이 있으면 쓸모가 없게 됨으로 알뜰하게 가지치기를 해주었다. 이러한 지방인들의 작업은 도시상인의 돈을 지방임업경영에 유치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요시노의 밀식조림에 대조적인 것으로 오비지방의 소식조림(疎植造林)이 있다. 오비지방의 임업은 비배임업(肥培林業) 또는 해안임업(海岸林業), 삽목조림(挿木造林)임업이란 별명을 얻고 있다. 이 기술전통은 약 3백년간의 역사를 지니고 있고



▲삼나무 공원. 전주완당공원. 1989. 4. 8

오비지방은 요시노지방에서 멀지 않은 곳이나 해안지대이다.

막부시대에는 일반서민은 삼나무나 편백 등 고급재를 벌채할 수도 없었고 그것으로 집을 지을 수도 없게 되어 있었다. 숲, 땅과 나무는 번주의 소유였는데 오비지방에서는 번주가 백성들에게 산을 이용하도록 하되 나무를 심고 가꾸는 백성은 나무를 끊을 때 그 반만을 차지할 수 있는 소위 부분림제도(部分林制度)를 취했다. 이때 나무가 어릴 때에는 나무 사이에 농작물을 간작(間作)할 것을 허용했기에 농민들은 일부러 나무를 드문드문 심어 농작물 간작에 힘을 썼다. 농작물에 주는 비료는 나무에게도 비배의 효과를



▲오래된 삼나무. 제주도. 5·16 도로에서. 1978년 가을.



▲방사선으로 유도된 삼나무 변종. 큐슈임목육종장. 1972. 10

가져왔고 그 결과 나무가지가 굵게 되었지만 농민들은 가지치기에 힘을 쓰지 않아서 끝이 죽은 나무 줄기, 즉 초살재(稍殺材)가 생산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리고 삼나무 실생묘의 양성은 성가시고 노력과 비용이 더 많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삼나무 결가지를 쳐서 직접 숲 땅에 꽂아주는 직삽조림(直插造林)의 기술이 발달하게 되었다.

그 뒤 백성들은 번주에 청해서 수확물 3분의 2를 가질 수 있는 소위 「3분의 1의 산」이라는 분수제도(分收制度)를 만들었다.

이처럼 오비임업은 내륙임업인 요시노임업과 크게 상반되는 기

술체계를 형성하여 오랫동안 그 전통이 이어져 갔었다.

교오또(京都)지방은 옛 수도 지역이어서 노동력 얻기가 극난했다. 그래서 이 지방에서는 삼나무의 줄기를 끊어 쓰고 그 뒤 남아 있는 그루터기에서 움푹이 줄기를 발생시켜 숲을 갱신해 나가는 소위 다이스기(台杉)작업이 발달했고 이것이 유명한 기따야마(北山)임업을 형성하였다. 이밖에 에도 이즈(伊豆), 히타, 기소 등의 유명임업지가 있고 그 나름대로의 삼나무 목재가 생산되었던 것이다.

필자는 일본의 우량한 삼나무 조림지를 볼 기회가 있었는데 생

각나는 것으로 닛포(日光), 아케다(秋田), 기소, 오비, 기따야마 등이 있다.

몇 해 전 일본 월간지에 한국의 임업을 소개했더니 원고료조로 삼나무 심재로 만든 대형화병이 보내져 왔다. 이것은 삼나무의 분포 남한지(南限地)인 야쿠시마(屋久島)의 3천년생 삼나무가 태풍으로 넘어진 것을 이용한 것인데 그 심재로 광택있는 꽃향아리가 기증되어 우리 집 가보 제1호의 위치에 있다.